

2021년 서초구 성인지 통계
[가족·안전 분야]

테마로 만나는 서초구 성인지 통계





성인지 통계란?

성인지 통계란 성별로 구분된 통계로,
남녀의 불평등한 상황을 분석하여 성평등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어주는 통계자료입니다.

기존의 전국과 시·도 단위의 성인지 통계자료에서는
구 단위의 표본수가 작아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는 서초구만의
성인지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서초구민이 체감하는
지역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자
성인지 통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안전한가요?

우리 동네의 도로는 편안하고, 생활은 안전할까요?
서초구 성인지 통계를 통해
서초구민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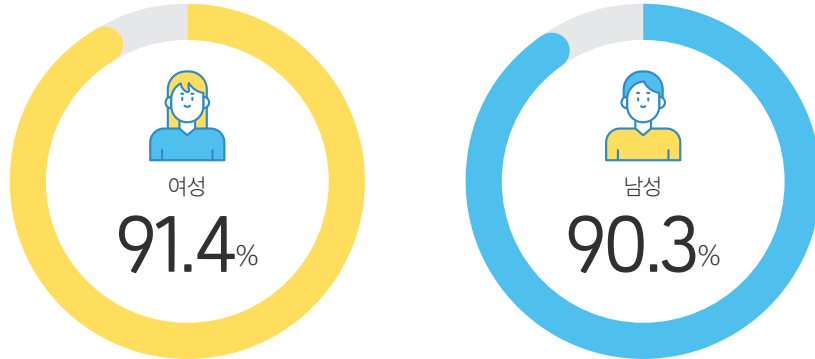


안전한 우리 동네 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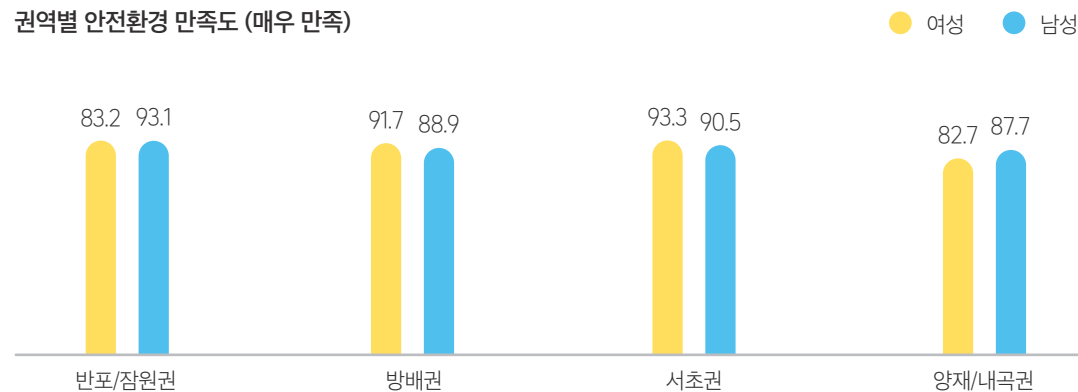
서초구민들은 동네의 전반적인 안전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반포/잠원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양재/내곡권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서초구민의 안전환경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성별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은 도로 환경 중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여성은 보행 환경 중 야간 통행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동네의 안전환경에 만족한다



권역별 안전환경 만족도 (매우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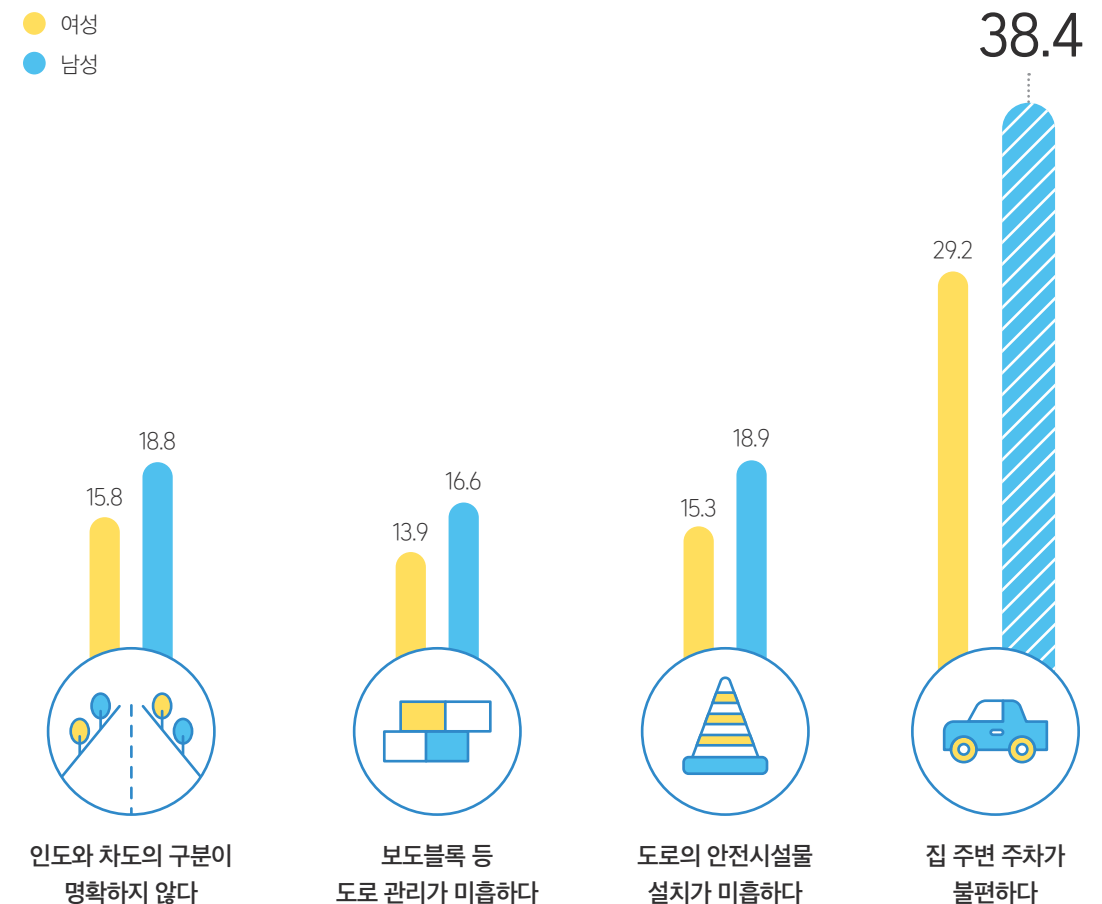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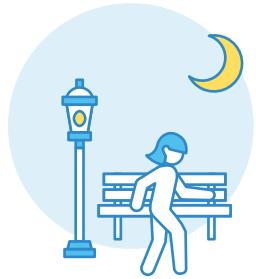
남성, 도로 안전환경 민감도 높아 특히 주차가 가장 불편

도로 안전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은 어떨까요?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로 관리·안전시설물 설치 등 전반적인 도로 안전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낮게 나타나 남성이 도로 안전환경에 대해 더욱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차에 대해서는 남성의 불만족도가 여성보다 약 9%p 이상 높았습니다. 여성은 주로 도보로 이동을 하고, 남성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이 도로와 주차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서베이(도시정책지표조사)」, 2021

● 여성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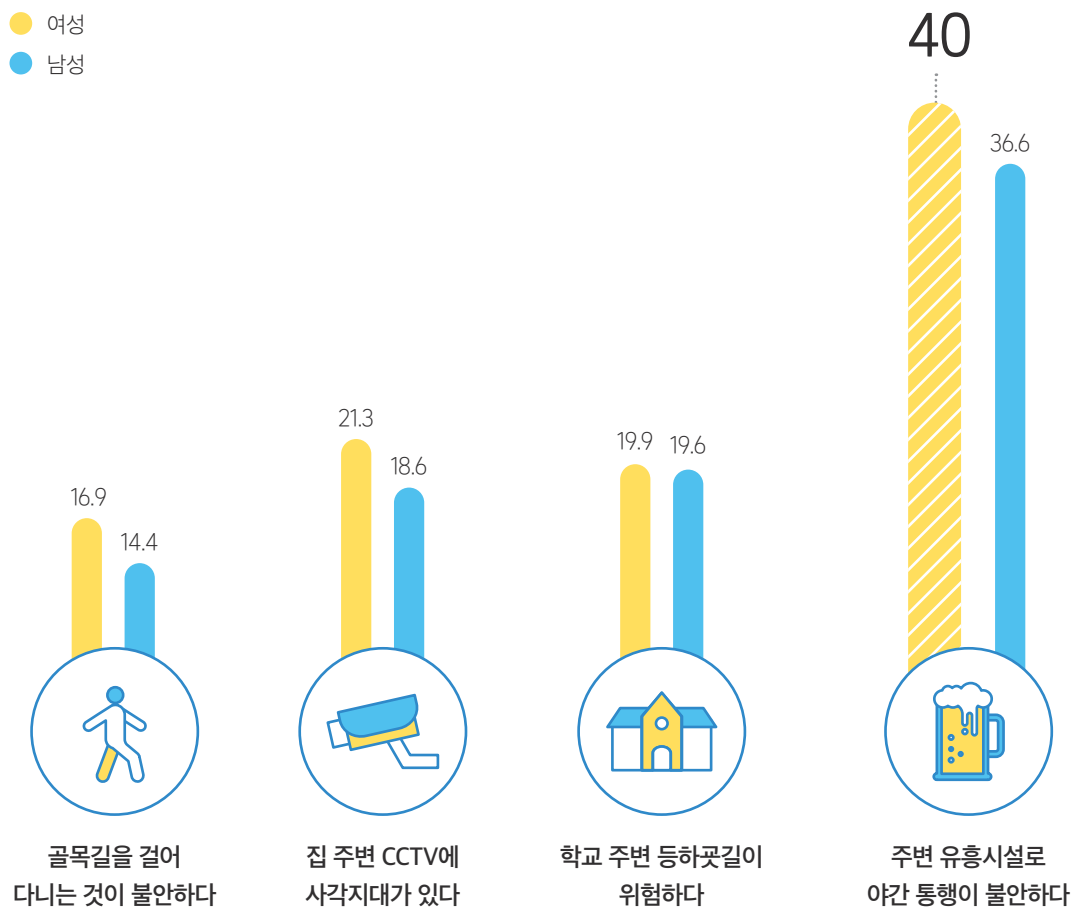




보행안전은 우수, 그러나 여성의 야간 통행은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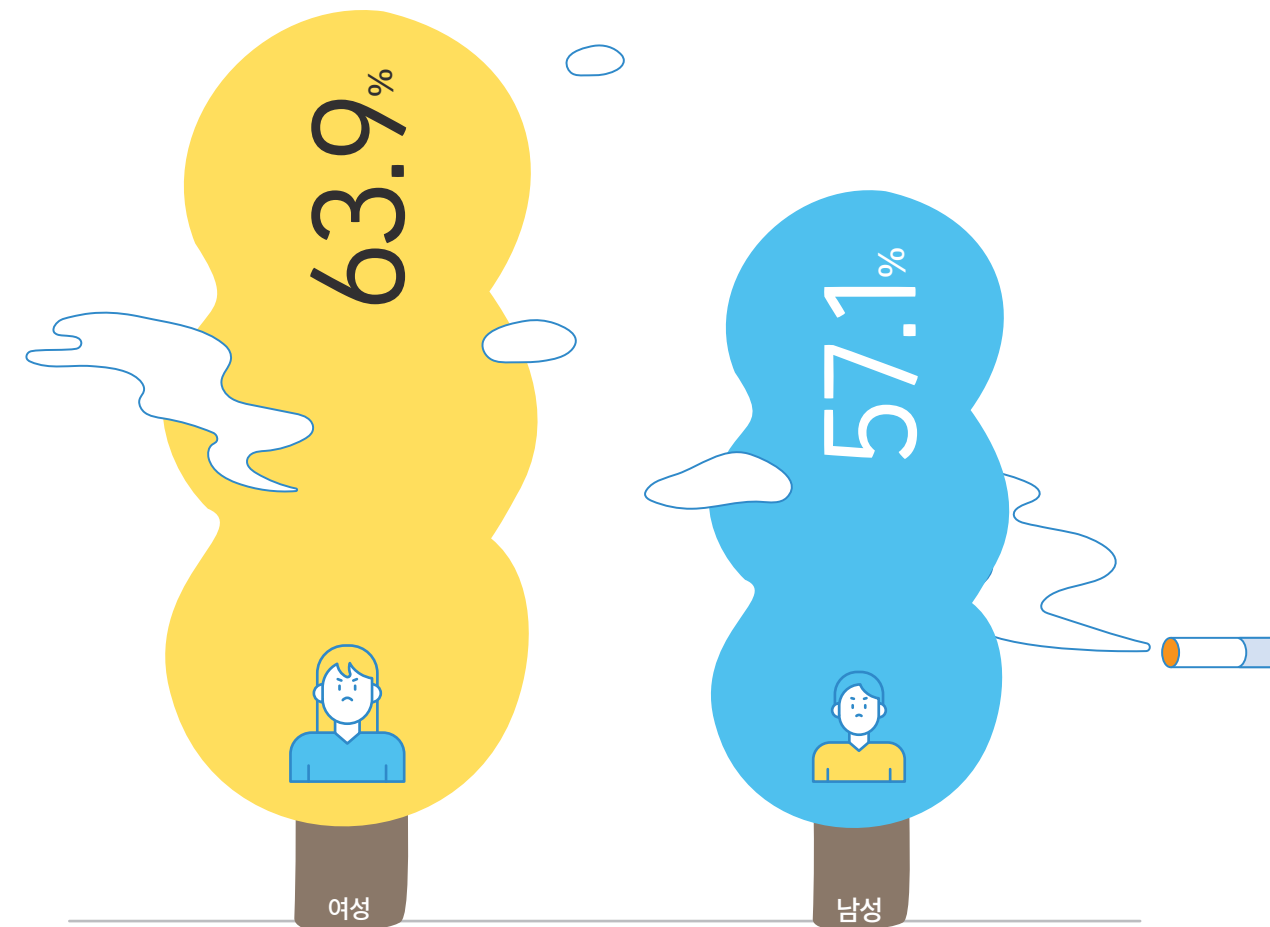
골목길 통행·CCTV 설치·학교 등하곳길·야간통행 등 서초구의 보행 안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서초구가 걷기 좋은 동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 주변 유흥시설로 인한 야간 통행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야간 통행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불안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여성
● 남성



밤길보다 무서운 골목길 흡연

여성, 남성 모두의 불안이 가장 높았던 부분은 '집 주변 흡연'이었습니다. 여성은 63.9%, 남성은 57.1%가 집 주변 흡연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초구는 주요 전철역 인근,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집 주변이나 골목길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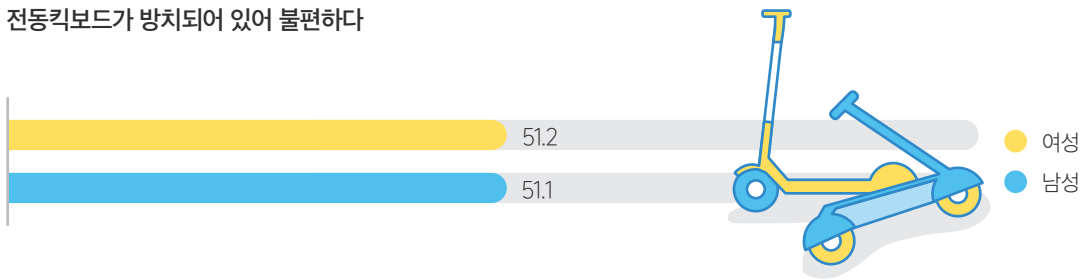




인도를 점령한 전동킥보드

흡연 외에도 많은 서초구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전동킥보드'였습니다. 여성의 51.2%, 남성의 51.1%가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시범 설치하였고, 주정차위반 신고제를 도입하여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거나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있어 불편하다



서초구는 이렇게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차존 설치



전동킥보드
주정차위반 신고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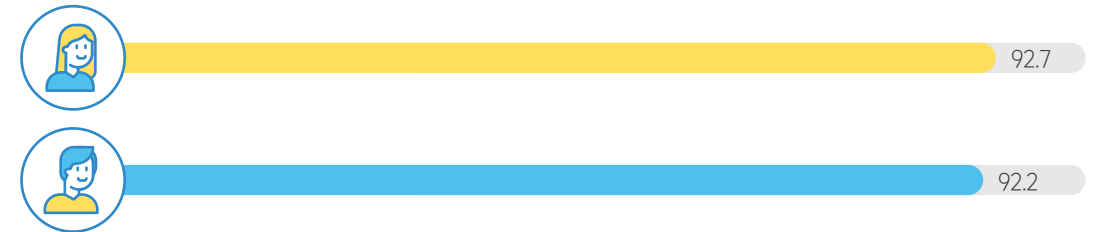
- 차도
- 지하철역 출입구
-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횡단보도 진입로



튼튼한 골목길 안심 지킴이 CCTV

서초구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주민들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사업 1위는 골목길 안심 CCTV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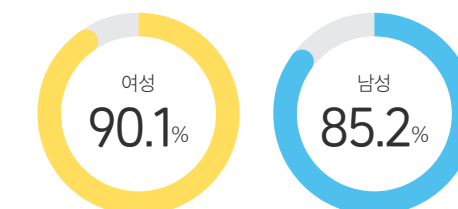
골목길 안심 CCTV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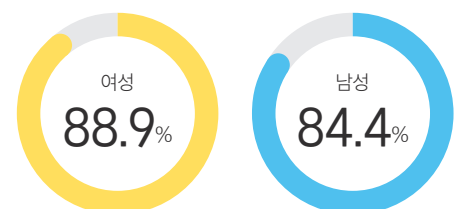
오래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서초

생활안전 개선 사업 이후, 거주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대다수의 주민들이 '오래 살고 싶은 동네'라고 응답하여 지역에 대한 높은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안전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전보다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다





서초구의 생활안전 개선 사업

서초구의 생활안전
개선 사업은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초형 안심보행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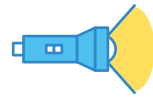
활주로형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서초몰카보안관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골목길 안심CCTV



버스 정류장 스마트 에코쉘터



일상속 예술공간 서초



셉테드(CEPTED) 도시안전



재활용품 분리수거 서리폴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원

서초구민의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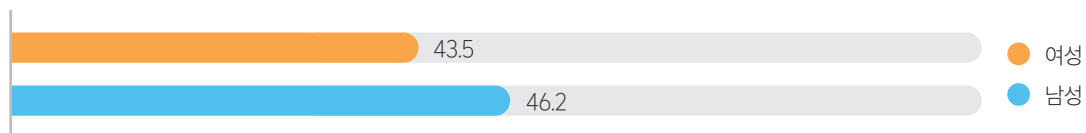
워라밸은 일(WORK)과 생활(LIFE)의 균형을
뜻하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일보다 개인의 삶과 가정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초구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서초구민, 워라밸이 중요해

서초구민은 일과 가정생활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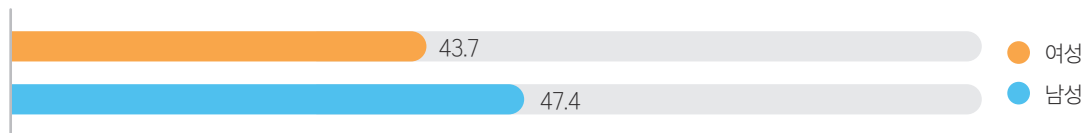
일과 가정 모두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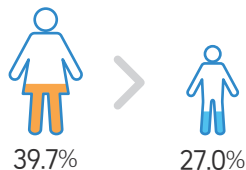
하지만 여성은 가정생활, 남성은 일

그러나 성별을 구분해 보면 여성은 가정생활을, 남성은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가정 내 역할 구분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남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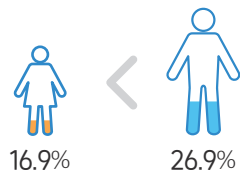
여성들은 가사와 양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해야 한다



가정생활이
우선이다



일이
우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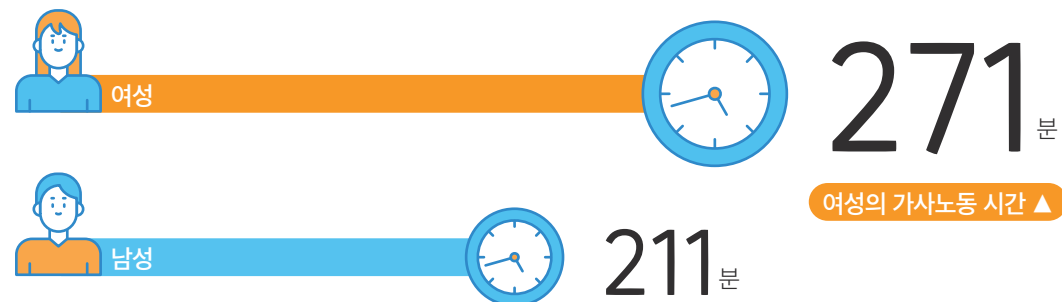


여전히 돌봄과 가사노동은 엄마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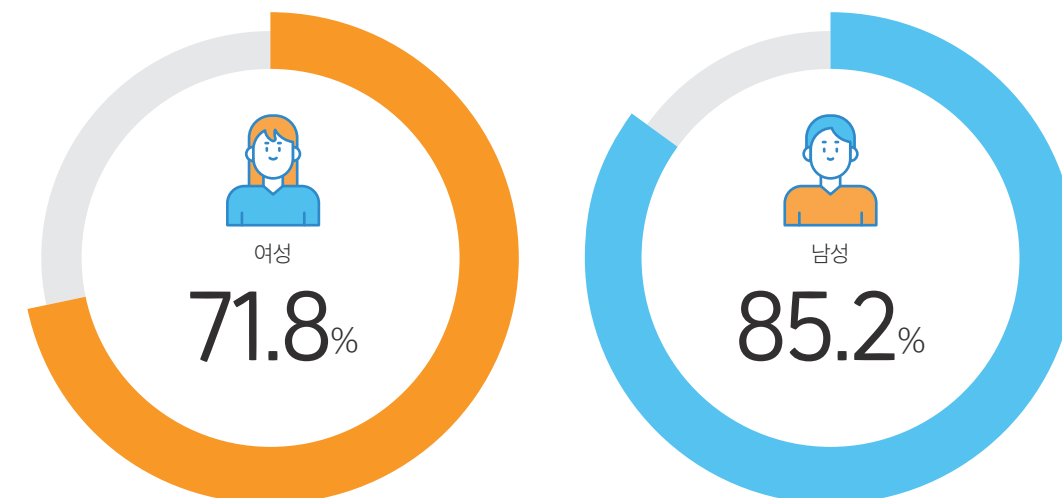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서초구민이 돌봄과 가정관리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여성은 하루에 약 271분, 남성은 하루에 약 211분의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매일 60분 더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 역시 여성이 조금 더 낮았습니다.

하루 가사노동시간



가사분담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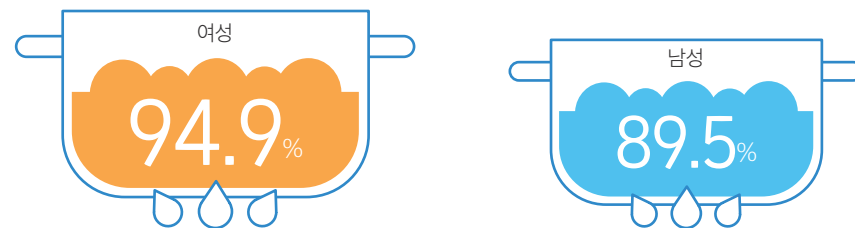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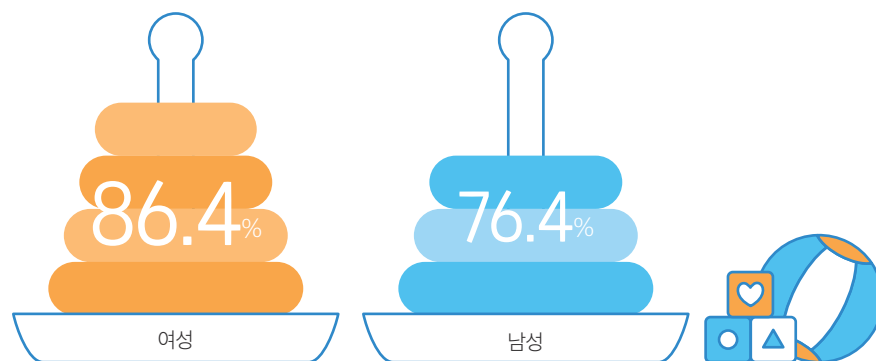
그러나,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서초구민 모두 남성의 식사 준비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가정 내 역할 구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에는 29,041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높아져 2021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26.3%가 남성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021년 남성 육아휴직 현황 보도자료」, 2022)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는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평등한 돌봄과 가사노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남성도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돌봄, 이제는 사회의 역할로

서초구의 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가족 돌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비혼 응답자들도 돌봄을 1위로 꼽아, 이제 돌봄이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초구민,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가족 돌봄 사업 확대

2위



가족소통/교류공간
및 프로그램

3위



남성의 가사/육아
지원 사업

4위



아빠 참여 양성평등
프로그램

5위



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이 외에도 서초구에서는 더욱 평등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여 남녀 모두 행복한 서초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초구의 다양한 가족 성평등 지원 사업, 알고 계셨나요?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매월 30만원)
-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초키움센터' 운영
- '서초프렌다디' 운영
- 시간제 보육서비스, 서초형 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산모돌보미 사업

